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환경정화 활동

✎ 박성원 기자 | ④ 승인 2025.04.28 11:56

논산시 노성면 가곡저수지서 '내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28일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가곡저수지에서 '내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28일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가곡저수지에서 '내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성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마을 주민, 논산선재어린이집 어린이들, 논산지사 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낚시용품과 일회용품 등 약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병사리와 가곡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거 작업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됐다.

서봉수 논산지사장은 “청정 농업용수 확보와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며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원 기자 parksw@dtnews24.com